

생명의 삶
월요일
20.03.16.

성경,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의 기초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24~31

3. 본문 해설 & 적용하기

최고의 신앙 고백자 도마 (20:24~29)

기독교 역사에서 도마는 늘 '의심 많은' 사람이라 불리면서 믿음이 작은 제자의 표상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24절). 도마는 어떤 사실을 볼 때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곧바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진실되게 비판적인 도마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요?
- 신앙생활에서 겸손하면서도 정직한 의심을 갖는 것은 어떤 유익을 주나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신앙 (20:30~31)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책 곧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이 책'(30절)은 요한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책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하는 '전도'냐 계속 잘 믿게 하는 '양육'이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복음 전도와 개인의 믿음 성장에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말씀의 절대 신뢰'라는 방패를 들어 넉넉히 승리하라.

- 존 맥아더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거듭하신 예고에도, 다른 제자들의 분명한 증언에도 의심을 품었던 도마의 뒤늦은 믿음을 기꺼이 받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순전히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화요일
20.03.17.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1~14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디베라 호수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 (21:1~7)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몇 명이 디베라(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선교하러 가지 않고 생업의 장소로 간 것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 명령을 어겼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업의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일상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을 찾고 만나기 원하십니다.

-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인식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증거 (21:8~14)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당시 제자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1, 14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라 호수에서 만난 7명의 제자들은 그때 잡은 물고기 개수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2, 11절). 요한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건임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생선 및 떡(빵)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20:29).

- 주님이 부활 후 식사하신 것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개수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은 뜻밖의 반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 헬무트 틸리케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현실과 이성에 갇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 눈을 사랑으로 밝혀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뜨겁게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이어 가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수요일
20.03.18.

사명 감당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 사랑뿐입니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15~25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15~17)

비록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에 그분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 하셔서 베드로가 긍정의 대답을 세 번 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를 과거의 실패로부터 회복시키고 그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마침내 목양 사명자가 됩니다. 이것은 교황이나 사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사명을 받게 되며, 그 사명이 무엇이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질문하셨을까요?
- 내 능력, 재물, 경험 등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제자들의 서로 다른 사명 (21:18~25)

어떤 사명이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순교와 요한의 장수 중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1~22절)은 각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8~19절에 암시된 것과 초기 교회 문서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감당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이 듣고 본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오랫동안 전하는 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되 남이 받은 사명을 질투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 베드로는 요한이 훗날 어떻게 될지 왜 궁금해했을까요?
- 나의 사명관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세요.

높이 계신 주님께 순전한 사랑을 드릴 때 하늘의 은혜는 우리의 비전과 전 존재를 변화 시킨다.

- 토미 테니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스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받아 주소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손으로 저를 일으키셔서 사명의 길로 주저 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목요일
20.03.19.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사명, 함께 이루는 하나님 역사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2. 오늘의 본문

학개 1:1~15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성전 재건에 대한 책망과 권면 (1:1~11)

사명을 외면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나무로 만든 '판벽한 집'을 짓고 곡식을 많이 수확해 안락하게 사는 데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소득은 형편없었고, 그들의 땅에는 가뭄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뒤로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행위를 깨우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자 선지자를 통해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백성이 열심히 수고해도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 (1:12~15)

말씀을 쫓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성취됩니다.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명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16년 동안이나 중단했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학개의 첫 설교 후 24일 만에 재개하고, 그로부터 약 4년 만에 완료합니다(스 6:13~22).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핑계, 변명, 합리화, 망설임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상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행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심의 덮이 우리의 영적 자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라.

- 프리실라 샤이러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제 행위를 살펴봅니다. 사명을 잊고 세상적인 행복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듣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금요일
20.03.20.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 오늘의 본문

학개 2:1~9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1~4)

위대한 결단보다 지속적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백성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명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크고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규모와 외양이 너무 초라하고 불품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고작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이토록 고생해야 하나?'라는 회의와 불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재건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세 번이나 거듭 격려하십니다(4절). 사명의 길을 걷다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인내와 순종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 성전 재건 공사를 하던 백성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명을 감당하던 지체들과 내가 회의와 낙심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2:5~9)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품없을지라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료와 형태로 지어졌느냐와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재건되는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 내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어떻게 기도하며 힘쓸까요?

부정적 생각과 말로 미래를 단지 말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 하용조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일을 쉽게 포기하려 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함께하심을 믿고,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다잡겠습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넘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토요일
20.03.21.

하나님 뜻으로 돌이킴이 복의 시작입니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2. 오늘의 본문

학개 2:10~23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2:10~19)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복을 얻는 길입니다. 학개가 제사장에게 두 가지로 질문한 것의 대답은 '거룩함은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레 21:1; 민 19:22). 이와 같이 죄는 쉽게 전염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백성은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아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은 그들이 부정함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한 정결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요 4:24)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곤고함이 사라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여러 재앙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 참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부터 내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 (2:20~23)

하나님은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포로지에서 백성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은 대적들의 반대와 공격, 내부의 회의와 불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며 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성전 재건을 이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격려하시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격려하길 원하실까요?

부족한 것일지라도 거룩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빛으시며 최고의 것을 이루신다.

-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죄와 세상 가치관에 물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5. 주 기도